

# 세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자! ‘피부감염증’



드림피부과의원  
박경호 원장

## 피부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당뇨병

당뇨병에 걸리면 피부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번에는 감염과 관련된 피부 병변 위주로 살펴보자.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소혈관과 대혈관이 모두 영향을 받게 된다. 혈관 내피세포의 증식과 여러 가지 물질의 침착 등으로 기저막이 두꺼워지고 이로 인하여, 혈관이 좁아지게 되어 혈류가 좋지 못하게 되는 당뇨병성 미세혈관병증이 발생하게 된다.

피부 자체의 진피혈관계에도 미세혈관병증이 발생되어 피부혈류의 감소가 초래될 수 있고 이는 피부의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나 상처의 회복을 감소시키게 된다.

당뇨병성 미세혈관병증의 후기 증상으로 발에 습성 괴저가 발생하기도 하고, 대혈관을 침범하는 경우에 사지 말단부의 창백하고 차가운 피부와 함께 다리와 발의 허혈성 괴저가 발생하기도 한다. 괴저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 파괴되면서 궤양이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 당뇨병이 감염에 취약한 이유

당뇨병이 있으면 여러 종류의 균들로부터 몸을 지켜내는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세균 감염이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당뇨병이 잘 조절되지 않은 경우에 외부로부터의 감염도 잘 생기고, 늘 상재하는 균이라도 건강한 상태에서는 번식하지 않을 균들이 번지기도 한다. 종기가 잘 생기기도 하고 한번 생기면 쉽게 낫아 잘 낫지도 않는다.

당뇨병환자에서 감염을 잘 일으키게 하는 인자로는 혈당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 케톤혈증, 말초혈관질환, 백혈구의 기능이상, 건조한 피부,

피부손상, 신경병증 등이 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피부질환**  
여러 가지 세균과 곰팡이균(진균)의 감염이 잘 발생하는데, 포도구균 농피증과 칸디다증이 흔하게 발생한다.

칸디다증은 입속과 손발톱 주름, 여성의 외음부, 그리고 기타 접히는 부위에 흔히 발생되는데, 여성의 경우 외음부가 가렵다는 증상으로 흔히 내원한다.

농피증의 일환으로 종기가 다발성으로 발생될 수 있으며, 다리에 궤양이나 괴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히 이차 감염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당뇨병환자의 경우 전체 청결과 발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당뇨환자 티눈

당뇨병환자에서는 발의 근육들이 위축되므로 무게를 버티는 균형이 달라지므로 한쪽에 무게가 쏠리므로 굳은살이나 티눈이 잘 생기는데, 집에서 티눈이나 굳은살을 제거하다가 상처가



나거나 이차 감염이 되어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또한 피부가 건조하기도 하고 당뇨병 자체로 인해 피부가 가려우므로 많이 긁게 되는데, 긁는 것 같은 간단해 보이는 행위도 염증반응을 유발하거나 미세한 상처를 내기 때문에 긁은 부위가 염증반응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므로 손톱으로 긁지 않도록 피부의 보습을 잘 유지하고 가려움증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을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발병이 서서히 진행된 나이든 환자의 경우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흔히 발견되는데, 대부분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함께 침범되는 다발신경병증이 말단부에 대칭적으로 발생한다.

발에 운동신경이 침범된 증세가 나타나는 시기에는 넘어지거나 다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므로 특히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발 관리를 잘 하고, 상처가 나는 경우에는 곧바로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천공성 궤양 발생을 사

전에 예방해야 한다.

감각신경이 침범되어 있으면 상처가 나거나 벗어나거나 긁기 시작해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서서히 궤양이 진행된 후에 발견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발을 항상 깨끗이 씻고 매일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게다가 당뇨병성 수포증이란 것도 있는데, 수포가 보통 다발성으로 발생하고 크기는 다양하다. 사지 특히 발에 외상과 관계없이 자연 발생하는 수포가 염증 소견 없이 발생되는데, 대개 오랜 기간 동안 당뇨병을 갖고 있는 환자에게서 발생하며 말초신경병증, 망막병증, 신장병증 등의 합병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발생원인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말초신경병증, 미세혈관병증 등이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2주~5주 만에 흉터 없이 저절로 없어지는 경과를 보이므로 수포증 자체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수포가 생기는 경우에 피부가 보호막이 없어지므로 또한 이차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염증이 없더라도 상처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당뇨병성 유지방성 괴사생성

당뇨병환자의 약 0.3~0.7%에서 발생하는 유지방성 괴사생성은 주로 다리의 앞쪽과 바깥쪽에 잘 생기며 간혹 얼굴, 몸통, 팔 쪽에 발생하기도 한다. 여자에서 3배 정도 높게 발생빈도가 높는데, 비교적 무증상이고 한쪽 또는 양쪽에 모두 발생한다.

증상은 처음에는 경계가 명확한 작은 진한 붉은색의 뾰루지처럼 시작해서 점차 크기가 커지면서 경계가 불규칙하고, 납작해지면서 표면이 함몰되는 소견으로 변한다. 병변은 붉은색의 경계부를 제외하고 갈황색을 띠고 피부는 위축되어 있고 각질과 확장된 모세혈관이 관찰되는데, 병변은 만성적으로 서서히 진행되어 융합되거나 커져서 종아리 앞부분 전체를 침범하기도 한다. 유지방성 괴사생성이 진행되면 이차감염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므로 병원에서 피부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서 잘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발을 얼굴같이 관리하자!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하는 점은 발관리에 관한 것이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당뇨병환자의 다리, 발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당뇨병환자가 다리에 궤양이 생기면 환자 10명 중 1~2명은 다리 절단을 해야 할 정도라는 연구결과도 있을 만큼 당뇨병성 궤양은 매우 위험하게 다뤄야 한다. 특히 당뇨병으로 동맥경화증이 있는 경우에는 더 심각하다. 그러므로 간단한 무좀 같은 질환이라도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열심히 치료하고 조절해야 한다. ✎